

Chapter 1. 호세아 7.

❖ 본문: 호세아 8 장 1 절 -14 절

➤ 들어가기

오늘 살펴보는 호세아서 8 장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행하며 위선적이고 거짓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보다는 앗수르를 더 믿고 의지하며 자신들의 힘과 지혜대로만 살았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1. 임박한 대적의 침략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1-3 절)

1)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팔을 입에 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절)

- ‘나팔’은 대적이 쳐들어 왔음을 알리는 도구!
 - 곧, 호세아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대적들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 올 것을 선포케 하심!
- 특별히 하나님은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칠 것’이라고 가르쳐주심!!
 - 곧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대적들은 독수리처럼 날렵하고 용맹스러울 것이란 비유!
 - 아마도 이들은 열왕기하 17 장에 기록된 앗수르 왕 ‘살만에셀’(B.C. 727-722)과 그의 군대를 예언하신 것이라 볼 수 있음.

=> 여기서 참고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집’이라고 칭하셨다는 사실을 주목!!

- ‘여호와의 집’ => 주로 ‘예루살렘 성전’ 혹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
- 그러나 본문의 경우는 문맥상으로 볼 때, 분명 북이스라엘을 가리킨 말로 이해!!
- 따라서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혹은 하나님의 기업’으로써의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킨 말로도 해석!!
- 그런데 본문을 보면, 당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릇된 길로 행하며 범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저들을 ‘여호와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하나님의 기업’으로 인정하고 계셨다는 사실!!

- 그럼 왜 하나님은 원수들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하셨나요? (1b)
 - 지금껏 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율법을 어겼기 때문!!

-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무엇인가?
 - 출 20 장 1-17 절, 24 장 3-8 절,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내 백성이 되리라!”
 - 따라서 율법 =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범과 법칙’
- =>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써의 삶의 규범과 법칙을 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한다면, 그 결말은 결국 원수들의 침략을 받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함!

2)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원수들의 침략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2-3 절)

- 그럼 북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이었나?
 - 2 절, ‘…,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 그런데 이런 부르짖음은 참된 마음의 변화에서 오는 회개의 부르짖음이라기 보다는 그저 눈 앞에 처한 위기의 상황과 어려움을 당장 피하고자 하는 탄식과 낯두리에 불과!!
 - 왜냐하면, 저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은 여전히 어기며 우상숭배를 행했고, 열방들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
 - 참된 부르짖음은 항상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고, 거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과거에 행했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칙대로 선하고 바른 삶을 살고자 힘써 노력하는 것이 참된 부르짖음이요, 하나님을 진실로 아는 삶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자!!
- 그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저들의 위선적이고 거짓된 부르짖음에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나요? (3 절)
 - 이미 저들이 선을 버렸으므로,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심!!
 - 여기서 ‘선을 버렸다’는 말은, 선을 ‘멀리 제거했다’, ‘먼 곳으로 던졌다’는 의미!!
=> 곧 저들의 삶에는 더 이상 선은 없고 악만 남아 있으므로, 원수들의 침략을 통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 참고로 CEV 은 이 표현을 ‘Rejecting our good agreement’라고 번역!!
 - 하나님의 용서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 근거한 진실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자!!

2.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우상들의 파멸을 선언하시는 하나님 (4-7 절)

- 1)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들과 방백들, 우상들이 다 파멸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4 절)

- 그럼 북이스라엘이 세운 지도자들과 우상들이 다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 ①. 왕과 방백들 = 하나님께서 세운 왕과 지도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
 - ②. 모든 우상들 = 자기를 위하여 자신들이 만든 신들!!

- 2) 특별히 하나님은 사마리아가 섬기던 송아지 신을 산산조각 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5-6 절)

- 우선 사마리아가 섬기던 송아지는 무엇인가?
 -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전을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벧엘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의미. (왕상 12:25-33)
 - 이후 약 200 년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칭하면서 섬김!!

-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버려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타오르게 만들었다고 책망하심!! (5 절)
 - 원어대로 직역한다면 ‘분노가 활활 불타오르게 했다!’는 표현!!
 - 하나님은 저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는 그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이고, 참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치신 후, 그것이 산산조각 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심!! (6 절)
 - 참고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대신할 신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 출애굽기 32 장 1-8 절 참고,
 -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간 후 내려 오지 않자,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따지게 되었고, 아론은 저들의 요구에 밀려 금을 모으게 한 뒤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게 됨!
 - 특별히 저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는 영이시니, 자신들도 눈에 보이는 형상을 하나 만들어 섬김으로써 마음에 평안을 받고자 했던 것!!
 - 그래서 저들은 그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게 보았던 거룩한 소 ‘아피스’의 형상을 떠올리며, 금송아지로 불리는 이스라엘만의 신상을 하나 만든 후, 이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 칭하면서 섬기게 됨!
 - 이후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 일을 떠올리면서, 이런 일이 결코 재발되어선 안된다는 것을 가르치며, 철저히 금지시키고 모든 백성들에게 확답을 받았음!!
 - 신명기 27 장 15 절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 3) 하나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행위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7 절)
- 성경에서 ‘바람’은 종종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왔다가 사라지는 헛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예; 욥 8:2, 시 78:39, 렘 5:13), ‘광풍’은 공허한 결과뿐 아니라 파멸과 진멸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됨.
 - 곧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서 풍요와 평화를 기대하였지만, 그것은 다 헛된 일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패망하는 일이 됨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
3.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앗수르를 의지하고 찾는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신 하나님 (8-10 절)
- 1)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열방에 삼키워졌으며, 그 모습은 ‘즐거 쓰지 않는 그릇’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 절)
- 우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 당한 뒤 모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목!

- '이미 삼켜졌은즉' => 히/원 '니베라'란 말로 완료형 표현!!
- 곧,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직 멸망 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Now'의 일로 깨닫고 선포하게 하신 것!!
- 우리는 항상 말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

- 아무튼 이때 하나님은 패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즐거 쓰지 않는 그릇'에 비유!
 - 이것은 토기장이가 언제든 깨뜨려버리는 그릇을 연상케 함.
 - 곧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쓸모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함,

2)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앗수르를 찾고, 열방들을 더 의지한다고 책망하셨습니다. (9-10 절)

- 특별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들나귀'에 비유하시며, 앗수르를 찾고 있다고 책망하심!
 - 참고로 들나귀에 해당하는 히/원 '페레'는 '고집스럽다' '혼자 뛰어다니다' 등의 의미를 지닌 말로, 들나귀들은 항상 고집스럽고 어리석게 혼자 뛰어다니다 맹수들의 밥이 되거나 광야에서 혼자 죽는 처량한 짐승으로 묘사됨.
 - 곧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이처럼 고집스럽고 어리석었다는 것!!
- 하나님은 에브라임(북이스라엘)이 아무리 값을 주고 열방의 도움을 청해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케 하실 뿐 아니라, 열방의 억압에 억눌려 점점 더 쇠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음. (10 절)
 - 곧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인간이 그 어떤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 본들, 결코 피하거나 이길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

4.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11-13 절)

1)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많은 제단을 만들었으나, 도리어 그 제단으로 인해 더 많이 범죄하였다고 책망하셨습니다. (11 절)

-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란 말은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축복을 받겠다며 여러 제단을 쌓고, 거기서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
 -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저들에게 더 많은 죄를 짓게 했다고 책망!!
- 여기서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규정상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곳, 곧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음. (신 12:5,11,18).
 - 이것은 무분별한 제사로 인한 우상숭배의 죄를 미리 예방하고, 단일민족으로써 이스라엘의 유일 신앙, 곧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음!!
 -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뱀엘과 단에 독자적인 제단을 쌓았고(왕하 12:25-33), 이 후 각 지역, 각 산마다 무분별하게 제단을 쌓고 우상숭배까지 행하였다는 것!!
 - 결국 이러한 행동은 신앙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었음!!

2)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있음을 지적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12 절)

-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만 가지가 넘는 율법들은 함부로 대하면서도, 죄를 용서받고 축복은 받겠다며 수많은 제단을 쌓고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
- 참된 신앙생활, 예배생활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임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자.

3)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희생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하시며, 저들의 죄를 기억하고 심판하실 것이라 선포하셨습니다. (13 절)

- 특별히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드린다 하면서도, 결국은 자신들의 식욕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형식적이고 불경스러운 제사를 드렸음!!
 - 참고: 칼빈의 주석
 -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번제물의 경우는 항상 모든 제물은 온전히 불태워 드려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저들은 임의적으로 화목 제물로 변경하여 일부를 갈취하는 죄를 저질렀음!!
-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저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를 보시면서,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고 선언하심!!
 - 이것은 과거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것처럼, 저들도 종노릇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말씀!!
 -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을 행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한 심판을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자.

5.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쌓은 왕궁들은 물론이고, 유다가 쌓은 성읍들까지 다 불에 삼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14 절)

-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들의 지혜와 힘만 믿고 의지하며 우상숭배에 빠졌던 위선적인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시던 하나님은, 유다의 영적 타락과 교만도 별반 차이가 없음을 보시면서 미리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다는 것!!
- 지혜로운 성도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죄악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자신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돌아보며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

❖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묵상하게 된 내용이 있다면?

❖ 중보기도 제목 나눔